

[Orbi Class 국신T 약점진단 멘토링 Report]

10월 패턴모의고사 국어B 김오르비

[파트별 총평]

[종합진단-문학]

문학에서 1개밖에 틀리지 않았지만, ☆표 표시가 되어 있는 문항이 꽤 있습니다. 이 문항들의 공통점은 **표현상 또는 서술상의 특징을 묻고 있는 문항**입니다.

선지에서 사용된 ‘구체적 형상화’, ‘교차서술’, ‘병렬 구성’ 등의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레벨1] “패턴과 개념국어 문학파트”**를 다시 한 번 정확히 수강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 강좌에서 강조하고 있는 **각 선지의 개념과 작품과의 연결고리를 이해**해주신다면 오답률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진단-비문학]

전반적으로 비문학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번에는 과학지문에서 2문제를 틀리셨습니다. 평소에도 과학지문이 약한가에 대해 확인해보시고, 과학지문에서의 오답률이 높다면, **[레벨1] “패턴과 개념국어 비문학파트”**에서 **“과학-기술”의 지문구성 패턴과 내용 패턴에 대해 심도 있게 듣고, 기출문제를 통해 연습**하는 학습과정이 중요합니다. 자주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그대로 사진찍어 선생님한테 수시로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또한, 어휘 문제를 한 문제 틀리셨습니다. 어휘는 평소 꾸준한 학습이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레벨1] “어휘 완전정복”** 과정을 통해 수능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비문학 어휘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보죠. 25번 문항의 경우, 전형적인 “추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문에서 근거를 찾기보다는 **“추론의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3단논법에서 숨겨진 전제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A이론은 그림으로 나타낸다 → 각 국가의 구체적 비교가 어렵다 → B이론이 수치화된 방법으로 대안이 된다”까지가 추론의 근거입니다. 즉, “수치화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숨은 전제를 찾아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추론의 흐름을 기억하고 유사한 문제유형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숨은 전제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이 문제 유형은 오답을 지워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것을 바로 고른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험에서는 인문, 사회, 예술에서는 비교적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비문학은 독해이고, 연습입니다. 꾸준한 연습을 부탁드립니다. 내용일치에서 실수(오답정리할 때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간혹 있다면 기출 공부시 단락별로 간단하게 요약정리하는 습관을 길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진단-화작문]

종합점수에 비해서 화작문의 약점이 눈에 띕니다. 화법과 작문에서의 시간부족은 패턴화된 유형을 정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레벨1] “패턴과 개념국어 화작편” 수강을 통해 평가원에서 출제하고 있는 유형에 익숙해지시고, 기출문제를 통해 숙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문법에서 음운변동 문항과 국어의 역사 문제를 틀리셨습니다. 음운변동은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단어의 발음과 연관지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레벨0] “개념과 패턴 문법 기본용어” 강좌와 **[레벨1] “문법의 패턴” 강좌에서 다루고 있는 음운변동 내용을 잘 이해**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문항별 오답진단]

■ 2번문항 (화법) 오답진단

화법의 1~3번 유형은 거의 정형화된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화법, 작문에서 과도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집중적인 화법, 작문 기출문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유형을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답을 정리할 때도 시험볼 때 찾지 못했던 근거를 다 찾아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 문항은 인터뷰내용을 근거로 교지 기사를 작성할 때 고려할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실제 교지 기사가 없으므로, 순수한 ‘추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 선지가 인터뷰내용에 비추어 보아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추론하라는 것이죠. 만약, 같은 유형 문제에서 실제 교지 기사 지문 또는 보기가 있었다면 이 문제는 내용일치로 둔갑하게 됩니다. 왜 유형이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1번문항 (문법) 오답진단

문법 11번 문제는 음운변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헛일 → /헛일/ → /헛닐/ → /헌닐/의 변화과정에서 3번의 음운변동 현상이 일어났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끝소리규칙, 두 번째 단계에서 ㄴ첨가, 세 번째 단계에서 비음화를 잡아주셨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음운변동 규칙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을 찾으라는 것이 이 문제의 의도이므로, 선지의 음운변동을 찾아봐야겠죠. ①의 ‘앞문’, ④의 ‘웃고름’은 ㄴ첨가가 일어날 수 없고(받침과 초성이 모두 존재하므로 첨가할 여지가 없죠), ②의 ‘숨이불’과 ③의 ‘눈요기’는 끝소리규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발음할 수 있는 ㄱㄴㄷㄹㅁㅂㅇ에 해당하는 받침표기이므로, 끝소리 규칙이 일어날 수 없겠죠) ⑤는 ‘나뭇잎’이 정답입니다. 나뭇잎 → /나뭇잎/ → /나뭇닙/ → /나뭇닙/의 흐름으로 음운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후략)